

**2022년 1분기  
기업설명회 Presentation  
Script**

**BNK** 금융그룹

## (1p)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BNK금융그룹의 CFO를 맡고 있는 정성재 전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사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여러분들 앞에서 실적발표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2년도 1분기 BNK금융그룹의 경영실적에 대해  
하이라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p) 2022년 1분기 그룹 경영실적 Highlights -그룹 손익현황과 수익성

2022년 1분기 그룹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36억원, 43.4% 증가한 2,76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1분기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사상 최대의 분기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은 대부분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며,

이자이익 및 수수료이익 등 핵심이익의 견조한 증가로  
그룹의 경상적인 순이익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손익 현황입니다.

그룹 이자부문의이익은

양행과 캐피탈의 이자수익자산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NIM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897억원, 15.2%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부문의이익은

투자증권의 IB영업 확대에 따른 PF수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62억원, 33.1%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부문의이익은

채권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침체로 유가증권 이익이 감소하였으나, 대출채권 매각이익 증가와 파생상품 매매이익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92억원 감소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부문입니다.

그룹 판매관리비는

전년동기대비 245억원, 7.1%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관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양행의 인건비 및 물건비 상승과 투자증권의 성과급 대상 실적 증가입니다.

올해는 그룹 판매관리비 증가율을

지난해 3% 수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며, 정규직 호봉 및 임금 상승률 등 자연증가 이외의 증가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룹 총당금전입액은 코로나총당금의 추가적립에도 불구하고,

우량자산 중심 질적 성장에 따라 양행 부도·도산 감소 및 캐피탈의 건전성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303억원, △27.0%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회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은행부문의 당기순이익은  
이자이익 큰 폭 증가와 총당금전입액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70억원, 45.1% 증가하였습니다.

부산은행 순이익은 1,28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7% 증가하였고,

경남은행 순이익은 87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3.9% 증가하였습니다.

비은행부문 당기순이익은  
캐피탈과 투자증권의 호실적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6억원, 28.3%  
증가하였습니다.

캐피탈 순이익은 575억원으로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와 PF수수료 증가한 가운데,  
총당금전입액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9.1%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증권 순이익은 345억원으로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큰 폭 감소하였으나,

PF수수료 수익 증가와 파생상품매매익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  
하며 타증권사들과는 차별화된 모습 나타냈습니다.

#### (4p) 은행 NIM 및 원화대출 성장

1분기 그룹 NIM은 1.97%로  
전분기대비 5bp 상승하였습니다.

당국의 유동성규제 완화조치 종료 예고에 따른 수신금리 상승 불구하고,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양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며  
NIM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은행은 2.03%로 6bp 상승하였고, 경남은행은 1.88%로 2bp 개선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원가성수신 비중 높은 부산은행의 NIM 반등 폭이  
경남은행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4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5월부터 미연준의 대폭 금리인상  
예상돼 2분기도 NIM 상승추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행의 대출 성장 부문입니다.

1분기 부산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년말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고른 증가세 보이며 2.4% 성장한 반면,  
가계대출은 금리상승과 당국규제 및 거액중도금대출 만기도래 영향으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줄어들며  $\Delta$ 1.8% 감소하였습니다.

1분기 경남은행 원화대출금은 전년말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비제조업 중심으로 3.6% 크게 증가하였으나, 가계대출은 비우호적 환경과 거액중도금대출 만기도래 영향으로 0.5%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중도금 및 이주비,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수요는 꾸준해 올해 양행의 계획수준인 4~5%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5p)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1분기 그룹 NPL비율은 0.40%, 연체율은 0.31%로 전분기대비 각각 5bp씩 하락하였습니다.

양행의 건전성 지표는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와 부실기업 축소 노력 등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은 부실채권 상각 감소로 전분기대비는 상승하였으나 업종 내에서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룹 Credit Cost도 0.33%로 선제적 건전성관리에 따른 총당금 감소로 전분기대비 16bp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정성 부문입니다.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11.18%로 안정적 위험가중자산 관리 및 당기순이익 확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6bp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그룹 보통주자본비율은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회사별 수익성과 리스크관리 중심으로 RWA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최근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중 동남권 제조업 생산은 신규수주 급증한 조선의 건조 본격화와 석유정제, 기계장비, 철강 등의 수요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1분기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수출 호조와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로 향후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 등으로 올해 美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 전망이 커지며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뱅크체제로 그룹내 이자이익을 담당하는 은행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BNK금융그룹에 대해 시장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